우암학원 창학 70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414호 1판 (음력 11월 15일)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기업이 원하던 자리 지식산업센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분양중 062)372-6666 시공 삼일건설

개각·靑 참모진 개편 대대적 인적쇄신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사태를 수습할 카드로 꺼내들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정치권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일단 여권에서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2인의 후보 추천을 마무리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번 주 내에 공수처장 후보 지명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장관 교체 등 일부 개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4일 단행된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개각에 이은 추가 개각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그동안 국면전환을 위한 인사를 꺼려왔지만, 이번 대국민 사과가 수습과 안정에 맞춰진 만큼 인적 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추 장관 후임으로는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전남의 소병철 민주당 의원의 이름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추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늦어도 올해 내에는 장관 교체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개각 대상으로는 여권내 서울시장 유력후보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언급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임으로는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이 거명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교체보다는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적절한 장관 후보군을 찾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가 개각은 내년 초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공수처장 지명과 함께 추 장관을 교체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법무부 장관 교체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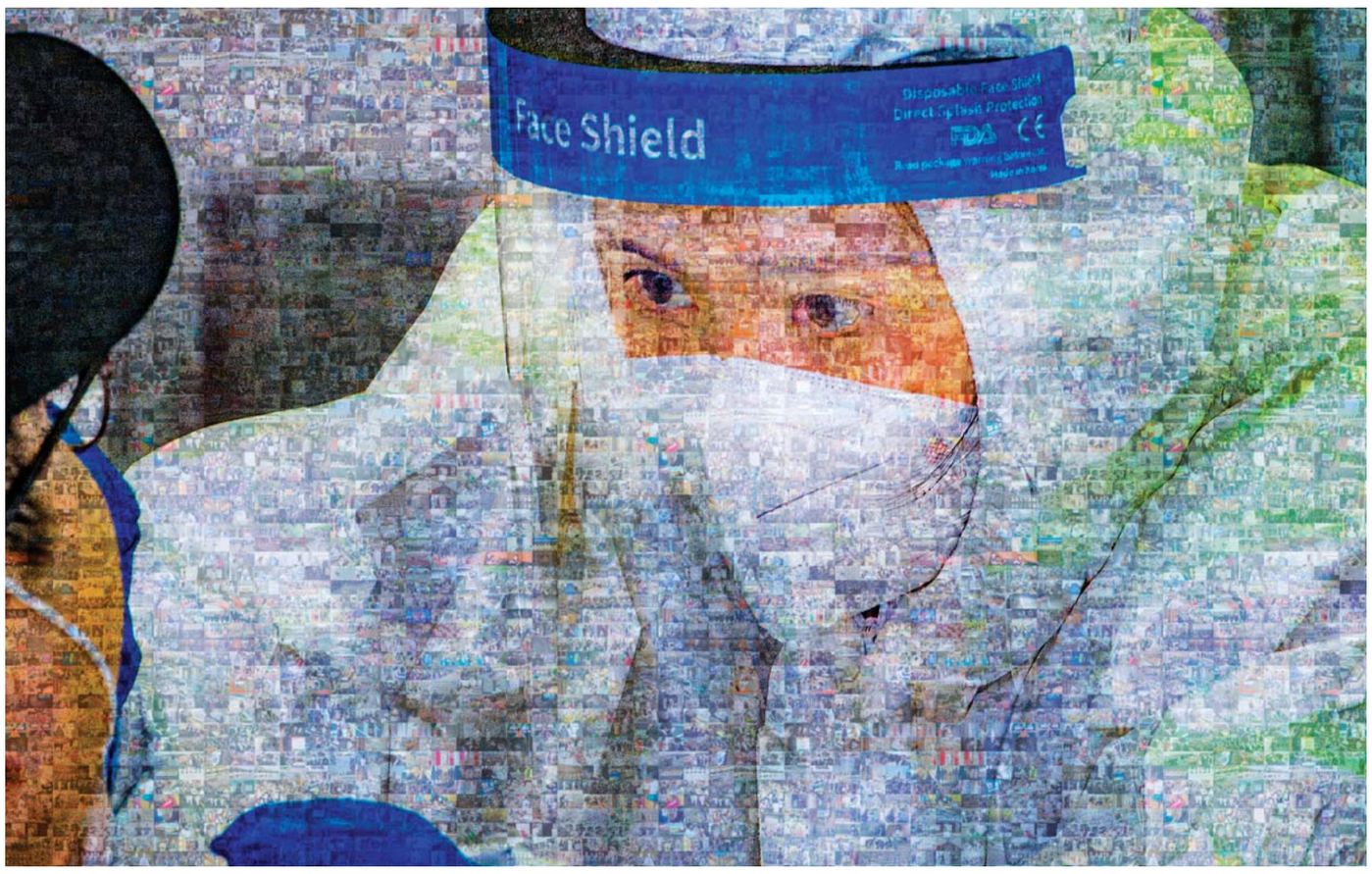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단행될 전망이다. 이미 여권 내에선 노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근무 기간이 2년이 된데다 문 대통령 사과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교체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추가 개각 발표 직후, 노 비서실장이 사의표명 등을 통해 퇴진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우윤근 전 주러시아대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4선 의원 출신인 최재성 정와대 정무수석의 승진 가능성과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기용 카드도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기존 정치권 인사가 아닌 임기말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무원 출신의 관리형 인사가 전격 기용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교체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문제 등으로 혼선을 빚으면서 교체 쪽으로 선회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후임으로는 교수 출신보단 실물경제를 잘 아는 인사가 기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코로나 최전선을 지키는 '醫人들'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난 1월 26일 중국 하이난에서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이들의 발열검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진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 코로나19사태 종식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취재한 무수한 사진 기사들 중 1000여점을 선정·배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을 모자이크 기법으로 표현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요양원·병원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오나 '긴장'

전남대병원 의사 3명 확진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발견된 가운데 광주에선 요양원발 감염이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가는 등 확산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전남대학교병원 의사들이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발 집단감염 사태가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면〉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에서 7명이 추가 확진돼 지역 감염자는 모두 1056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명은 광주 청사교회 관련 확진자로 격리 중 증상이 발현했으며, 3명은 전남대병원 의사로 확인돼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나머지 2명은 전남대병원 의료진의 가족이다.

확진된 의사 중 2명은 27일 확진된 다른 의사의 접촉자들로 전남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다른 지역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방역 당국과 병원 측은 접촉자를 조사하고 현장 위험도를 평가해 추가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달 13일 신경외과 전공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의료진, 환자, n차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2주간 1동 병동 전체 격리를 거쳐 지난 1일 진료를 정상화했다. 또 지난 27일에는 광주 에버그린실버하우스(요양원)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광주 북구 진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광주 1041번)와 입원환자(광주 1048번)가 추가 확진돼 병동이 동일 집단(코호트)격리됐다. 광주 1041번은 50여 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에버그린 요양원발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가 병원 5층 병동에서 23, 25일 각각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 의료진·직원과 환자 중 5층 상주 인원 89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추가로 입원환자 확진 사례를 확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형 3대 뉴딜 실현"
김영록 전남지사 "도민 건강·삶 지키겠다"

시도지사 송·신년 기자회견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송·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시·도정 성과와 과제, 그리고 2021년 핵심 시책 등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시장은 이날 "인공지능(AI) 중심 디지털 뉴딜 등 광주형 3대 뉴딜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실현하겠다"면서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아이들이 '나는 광주에 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새해 시정의 이정표가 될 내년 9월 전국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완성차 생산,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출생 축하금 100만원 및 육아 수당 480만원 지급 등 15대 정책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송·신년회견에서 "올 한해는 코로나와 재해로 도민의 안전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내년 도정 목표로 '더 새로운, 더 청정한, 더 행복한 으뜸 전남 실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청정과 그린, 바이오·첨단, 매력·으뜸, 행복·이음 등 전남의 8대 전략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는 "코로나 19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고, 침체 일로의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옛 전남도청에서 탄흔 410개 발견 ▶6면
통장 할 사람 없소? ▶7면
광주FC 동계훈련 무한경쟁 시작됐다 ▶22면

光州日報 since 1952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신·출산
광주출생육아수당
•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세대 출생~24개월 아동
• 출생축하금 100만원
• 육아수당 매월 20만원씩, 24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 평생 횟수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80시간
• 출산가정 대상 수유마사지, 수면코칭 등 지원서비스 20시간

돌봄·양육
입원아동돌봄서비스
•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 간병, 투약돕기 등 종합돌봄 제공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운영
•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내, 6개월~만 5세 이하 영유아
월(09:00)~토(20:00) 운영
실내놀이체험실 '키움뜰' 운영
•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내, 0세~만 5세 이하 영유아
화~토(10:00~17:00) 운영

일·생활 균형
임산부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관내 중소기업 30개소
• 출산휴가시, 사업자부담금 지원 4개월
임산부 직장맘 친화 환경조성
• 관내 중소기업 20개소
• 임산부 의자, 기구, 노무컨설팅 등 지원
육아휴직 업무 대행 수당 지원
• 관내 중소기업 대상 10명 이내
•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 1인당 200만원 지원

2021년 새해부터는
✓ 출생축하금(100만원), 육아수당(매월 20만원씩) 총 580만원을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확 줄입니다.
✓ 수유 마사지, 수면코칭 등 광주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맘 편한 환경 을 만듭니다.

모든 돌봄정보가 궁금할 때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에 물어보세요.
청년출발부터 임신, 출산, 보육 등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 www.광주아이키움.kr(gjikium.or.kr)
전 화 상 담 T. 062-222-1279 | 062-223-1279